

에스더 금식 할리 월리스 Holly Wallace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에스더 금식에 동참해 달라고 한 저희의 부탁에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왕국에 큰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에 1:1 와 비슷하게, 이번 기도 운동에 127 개국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모두 24시간이든, **16일 수요일 일몰부터 17일 목요일 일몰까지**든 3일 내내든, 적합한 모양대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서는 예슈아보다 5세기 앞서 일어난 실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당시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계 교회도 마지막 때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아세르가 제시한, 세 가지 간단한 참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공중 성경 낭독 - 헌신적 선포 및 예언적 공표의 의미로 다음 세 구절을 크게 읽으십시오.

- a. **에스더** 3-4 장
- b. **스가랴** 12:2-3, 6-10; 13:1, 8-9; 14:1-9
- c. **로마서** 9:1-5; 10:1-2; 11:1-29

2. **금식** - 물만 마시며 일몰부터 일몰까지 최소한 24시간 합니다(물론 특별한 경우엔 제외됩니다). 갈망함이 있고 능력이 되는 분들은 3일 내내 에스더 4:16 말씀을 따라 금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3. **기도** - 에스더 서의 주제를 따라 중보하며 7대 주요 기도 제목을 강조합니다.

- a. 무슬림 족속들의 구원
- b. 유대 민족의 구원
- c. 예슈아를 통한 유대인과 아랍인의 화해
- d. 전세계 반유대주의의 영을 속박
- e.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남은 자들의 강화
- f. 이스라엘과 열방 정부 지도자들의 인도
- g. 교회가 재림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때 사건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짐 메이허 Jim Maher
로즈

[짐 메이허는 캔자스 시티 IHOP 이스라엘 위임 Israel Mandate 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저희가 하는 에스더 금식에 IHOP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는 소중한 아내와 아들, 딸을 남겨 두고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짐은 가족과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빠의 마음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짐과 엘리자베스 Elizabeth 가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첫 사랑에 빠진 두 학생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짐은 많은 영혼들을 목양했고, 달콤한 경배와 열정적 중보로 저희를 인도했습니다. 내면에 불 타오르던 사랑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육적-영적 가족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를 쌓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사랑스럽고 위대한 사람을 아는 특권을 누렸던 모두가 이 땅에 그가 있었음을 몹시 그리워할 것입니다.

지진 해일 이후 일본

아리엘 블루멘탈

[아리엘은 지난 4년간 일본에서 사역했으며, 피해 중심 지역에 가까운 저희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를 겪게 된 일본 민족에게 진심으로 동정을 표합니다. 예슈아께서는 지진과 유사 비극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 24:7). 인도네시아, 아이티, 중국, 뉴질랜드, 그리고 이번 일본까지. 일본은 그러한 재해에 가장 잘 대비된 국가였는데도 말입니다. 허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자연의 힘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러한 완력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본 민족에게 주신 자기 절제, 섬김, 헌신과 질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 일본 내 메시아의 몸이 수백 만 일본인들에게 원조와 위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연합되도록, 일본 열도 전체가 2.4m 움직인 것처럼 이 나라에 오래 기다려온 복음의 돌파구와 큰 전환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후쿠시마 Fukushima 현 이와키 Iwaki 의 다이라 Taira 기독교회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은 위험을 마주한 원자로 가까이에 있으며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방금 음식, 식수 및 휘발유가 동이 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생필품을 어떻게 구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메일을 (핸드폰으로) 받았습니다. 지도자들, 모리 Mori 목사님과 이카라시 Ikarashi 형제 및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라드 시위

[이번 주 남부의 아라드 시에서 있었던 반 메시아닉 시위 목격자의 보고입니다.]

어제 폴리 Polly S.의 집 앞에는 250여명의 초정통파 유대교 시위자들이 몰렸습니다. 시위는 약 2시간 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들인 한 이웃의 정원에는 초정통파의 행동이 싫다고 와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30-5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편을 드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위는 예상만큼 과격하진 않았지만,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250 명이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 있다 Am Israel Chai” 노래를 부르고, 랍비들은 설교를 하며 사람들은 랍비들의 부르짖음에 “아멘”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고, 다스리시며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십니다”를 외치며 종교적 열정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은 주님이나 그 분의 성품과는 무관했습니다.

중간쯤엔 “반 (기독교) 선교” 단체의 스크린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아라드 내 20 여명의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을 띄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유대 민족의 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시바 yeshiva 출신의 성도 한 명은, 자신이 예시바 다닐 동안 반 선교 단체가 들어와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마지막에는 예시바 학생들이 저희를 죽이고 싶어한다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 시위를 하던 이들 중에는 아라드 최초의 고등학교 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 그 자리에 있던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에게 노를 발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이목을 즉시로 끌 수 있었고, 카메라들이 그에게 쏘아댔습니다. 이스라엘 TV 는 이 시위 전체를 보도했습니다.